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會議
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23日(金) 午後2時

場所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際交流推進業務現況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國際交流推進業務現況報告의件 ... 1面

(14時 53分 開議)

○委員長 沈揆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參與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4年度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海外交流增進特委가 構成되어 바쁜 나날 속에도 變化하는 國際社會에 適應하고 參與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하고자 著名教授를 招聘한 가운데 세미나 開催는 물론, 執行部와도 긴밀한 협조체제

로 發展하는 서울市政을 만드는데 많은 奇與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世界는 GATT體制가 WTO로 바뀌면서 經濟는 國境 없는 無限競爭의 時代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環境에 對處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도 政府組織改編을 實施하고 있으며, 世界化 推進을 위한 國家競爭力 強化에도 힘써 國民과 公務員, 그리고 企業이 함께하는 世界化의 대장정에 參與하는 社會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千百萬 市民의 代表이신 委員님들의 獻身的인 참여와 지지로 우리 서울이 世界 속의 서울로 發展할 수 있도록 높은 經綸으로 市民의 意見을 市政에 反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國際社會에서 模範이 되는 서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도 國際競爭力 強化와 行政서비스 向上에 더욱 힘써 千百萬 市民과 함께하는 서울市政으로 世界化推進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當付드리면서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1. 國際交流推進業務現況報告의件

(14時 56分)

○委員長 沈揆辰; 議事日程 第1項 國際交流 推進業務 現況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觀光局長으로부터 國際交流 推進業務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께서는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먼저 業務報告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

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月 7日 서울市 人事發令에 따라서 道峰區廳長에서 文化觀光局長으로 補任된 張正植입니다.

尊敬하는 沈揆辰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李丁煥 幹事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께서 앞으로 國際交流業務의 增進을 위해서 繼續的인 관심을 가지시고, 指導鞭撻을 해 주시기를 仰請드리는 바입니다.

委員 여러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야흐로 世界는 國際化 時代에, 世界化 時代에 접어들었습니다. 來年부터는 WTO體制가 出帆을 하고, 또 이제 各國이 심한 競爭狀態에 到達해서 國境이 거의 무너지고 이제 無限競爭時代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도 大統領께서 世界化 推進을 宣言하시고, 앞으로 世界 무대에서 우리 韓國이 정정당당하게 國際競爭力을 培養해서 世界 다른 國家와 정정당당하게 競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劃期的인 計劃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市에서도 그 동안 國際交流는 물론이고 서울市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措置를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業務를 推進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傾注할 것을 여러분께 約束드립니다.

이에 94年 主要業務 推進實績과 來年度 推進業務計劃을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에 앞서서 關聯되는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觀光課長 白亨奐, 國際交流課長 金丙一)

그러면 配付된 油印物에 따라서 主要業務를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報告)

국제교류추진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
.....

이상으로 간단하게 業務報告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奎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이 報告한 國際交流 推進現況 및 實績에 따른 質疑 答辯의 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會議를 圓滑하게 運營하기 위하여 委員 여러분께서는 一捨質疑한 후 그에 대한 文化觀光局長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孟今龍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孟今龍 委員; 孟今龍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는 13個 都市, 恩平, 瑞草, 江南, 松坡, 蘆原, 中區 等 自治區에서 6個 國家 9個 都市에 姉妹結緣 및 交流事業을 推進하고 있는데 94年度 姉妹結緣現況 및 姉妹都市間 交流事業現況은 어떠하며, 向後 發展的으로 推進하는 計劃, 方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서울市の 世界 姉妹都市와의 交流事業에 있어서 姉妹都市現況과 交流實績 및 94年度 姉妹都市 交流事業 豫算執行 事項과 駐在官 現況, 駐在官 任務, 그리고 都市別 駐在官의 豫算執行 內容을 說明하고, 駐在官의 效率的 業務推進을 위한 支援對策과 駐在官의 選技基準과 身分 및 待遇에 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4年 韓國訪問의 해 弘報使節團 業務에 있어서 主要活動 推進實績과 使節團 構成은 어떻게 되었으며, 地域別

派遣內容과 國際交流 向上을 위한 業務推進事例, 弘報效果에 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다음은 姜晶錫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晶錫 委員; 姜晶錫 委員입니다.

서너 가지만 質問을 하겠습니다.

서울定都600年紀念行事 中 國際交流增進에 奇與한 行事 推進實績과 그 事業別 所要豫算, 執行狀況과 效果는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海外駐在官 現況과 向後 擴大設置方案은 어떻게 推進하고 있으며, 海外駐在官의 主要活動實績과 市政發展에 奇與한 分野에 대한 評價는 어떠한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94年 國際交流增進 活性化業務로 推進한 海外弘報使節團 派遣內譯과 主要活動, 그리고 使節團 構成에 우리 市議員 3名 中 海外交流增進特委 委員長이 參與 안 된 事由는 무엇이고, 地域別 派遣推進한 實績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다음은 李丁煥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丁煥 委員; 李丁煥 委員입니다.

今年은 우리 서울定都600年の 해이고 특히 韓國訪問의 해였습니다. 이제 1994년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지난 한 해 과연 우리가 定都600年事業과 함께 轉國訪問의 해의 캐치프레이즈를 건 지난 1년이 과연 정

말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이런 觀光과 또 定都600年事業을 착실히 遂行을 했는가 點檢을 하고 反省을 해야 될 時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好事多魔라고 한참 우리 定都600年事業을 벌이던 와중에 聖水大橋 붕괴라는 그런 엄청난 事故가 일어남으로써 한국방문의 해에 우리 首都 서울이 망신살 뻗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자탄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文化觀光局長 所管事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서울시 公務員 입장에서, 또 우리 市議員들도 똑같은 그런 서울市民을 대표한 公職者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맞음으로써 망신살 뻗친 1994年을 보내게 된 것은 참 여간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잔칫집에 재뿌린 그런 결과의 事故였습니다만, 그런 대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首都 서울의 歷史와 傳統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된 것만도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大統領께서도 이제 새롭게 世界化를 國政의 目標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우리 文化觀光局, 그 중에 특히 國際交流課가 맡아서 해야 될 그 任務나 責任이 더욱 重且大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今年 8億 3,100萬원의 豫算에서 95年度에는 무려 395%가 增額된 24億 4,900萬원의 엄청난 豫算增加 現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項目이 서울館 設置 運營을 위해서 자그마치 20億 6,000餘 萬원이 策定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다수 增額된 것이 서울館 設置運營을 위해서 이렇게 豫算이 策定된

모양인데, 來年度 서울館은 우선 北京과 LA에 設置 運營하겠
다 하는 報告가 방금 있었습니다.

世界化는 결국 地方化하고 背馳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方向
이라는 것을 우리 公務員뿐만 아니라 모든 市民이 다 認識할
수 있도록 弘報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단어 자체는 世界化와 地方化가 背馳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背馳되
는 概念이 아니라 같은 方向이다, 다시 말해서 外國人이 서울
에 와서 高層빌딩보고 文化가 西洋化된 그런 모습을 보기 위
해서 서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왔을
때는 世界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서울만의 文化, 그리고
우리 固有의 어떤 傳統 이런 것을 보러 서울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外國人 觀光客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 固
有의 傳統文化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껏해야 정말 형식적으로 建物에 지나지 않는 南大門, 南大
門에 外國人 觀光客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섬처럼 도로 한
복판에 있어가지고 우리 市民도 접근하기 어렵고, 하물며 外
國人 같은 경우 그냥 멀리서 서울에 왔다는 證明寫眞 정도는
南大門 앞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하드웨어
만 있는 상태입니다. 德壽宮도 그렇고 景福宮도 그렇고 우리
의 歷史라는 것이 서울市內에 산재해 있는데, 그 歷史的 遺物
은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開發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外國人이 韓國人 家庭에 招請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
서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韓國 家庭에 와서 뭘 보고 간 것입니까? 韓國觀光

온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韓國에 왔을 때는 김치를 먹고 또 우리 전래해 내려오는 어떤 禮節, 또 夫婦間의 禮節, 자식의 父母에 대한 禮節, 이런 전통적인 古風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市民 모두가 西洋化 되고 모든 生活文化가 西歐化되는 것이 先進社會로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것은 전부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外國 觀光客이 우리 서울에 와 가지고 韓國的인 맛을 보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韓國的인 固有한 맛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에 착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世界化 한다, 觀光 서울을 만든다 해가지고 덮어놓고 빌딩 짓고, 우리가 암만 하면 뉴욕 같은 데 좇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딩 짓는 것으로 대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韓國에서만 볼 수 있는, 韓國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開發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곧 地方化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門外漢보다는 觀光業務만을 專擔하시는 우리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께서 더 專門的인 識見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는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떠들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市民들이 그런 意識을 가질 수 있게끔 한 가정 한 가정 모두가, 한 가정 한 가정에 개인적으로 民間的인 차원에서 오는 觀光客이 많습니다.

定都600年을 보러 오는 觀光客 보다는 이 民間人 차원에서 來往하게 되는 이런 觀光客이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觀光客들이 자기 친척이라든지 다른 비지니스라

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왔을 때 그 어느 韓國家庭을 방문해서 정말 韓國의 이런 것이 멋있었다, 이런 것이 아름답다, 그런 것을 자기 祖國에 가서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전파돼서 韓國에 가면 이런 傳統的인 禮節이라든지 飲食文化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함으로써 차츰차츰 우리 觀光客이 불어나는 것이지 韓國訪問의 해라고 今年 定해서 과연 우리 觀光客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 報告에 의하면 겨우 入國者는 8.2% 增加했습니다. 오히려 出國이 32% 增加했어요.

이것은 韓國訪問의 해가 아니라 韓國 國民觀光의 해라고 정했어야 알맞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캐치프라이즈에 떠드는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서울市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또 市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의식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觀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덮어 놓고 캐치프라이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점에서 무슨 細部計劃이나 代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本委員이 지난번에도 質疑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公務員들의 海外旅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公務員들의 경우 旅券을 전부 本人이 所持하지 못하고 어떤 機關長이나 누가 함께 보관해서 집단적으로 管理를 하고 있는 그런 體制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요? 그것 좀 묻고 싶고,

이제 우리 公務員들부터가 西洋文物에, 또 外國環境에 더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公務員들이 市民을 啓蒙시키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선봉장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國際化, 世界化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公務員들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하면 民間人 次元에서는 이제 海外旅行이라는 것이 거의 自律化되다시피 하니까 많은 市民들이 海外旅行을 통해서 상당한 知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公務員들은 그런 어떤 폐쇄적인 制度 때문에 심지어 休暇期間 중에 海外旅行을 갔다 와서 懲戒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環境 속에서 公務員들이 世界化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市에서 公務員들에 대한 海外旅行 規制를 얼마만큼 풀 計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公務員들을 海外에 研修시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計劃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에 의하면 低開發國家 公務員들을 서울로 招請해서 敎育도 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外國 低開發國家 公務員을 敎育시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5萬餘 서울市 公務員들을 海外로 한 번이라도 더 구경시킬 수 있는, 그래서 눈을 世界로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對策이 아울러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對策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그러면 文化觀光局長의 國際交流 業務推進 現況報告에 따른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文化觀光局長의 答辯을 준비하기 위하여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8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揆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文化觀光局長의 國際交流業務 推進現況報告에 따른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文化觀光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文化觀光局長입니다.

먼저 孟今龍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부터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市 또는 自治區에서 姊妹結緣 및 交流事業을 推進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現況과 向後 發展 計劃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서울市는 현재 市에서 13個 都市와 姊妹結緣을 맺고 있고, 自治區 6個 區에서 9個 都市와 姊妹結緣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 94年度에는 江南, 松坡, 蘆原, 中區 等 4個 區廳에서 大連市 中山區, 과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심양시 화평구, 北京市 西城區 등 5個 都市와 姊妹結緣을 統結한 바가 있습니다.

94年度 姊妹都市間 交流事業은 市에서 交通, 環境 等 市政의 主要分野 調查團을 33回 206名을 派遣하거나 또는 招請하였고, 區에서는 15回 106名의 調查團을 派遣 또는 招請하는 등 활발한 交流事業을 施行하였습니다.

앞으로 市에서는 區와 外國都市間的 姊妹結緣을 積極 支援하고, 市에서도 95年 中 베를린, 뉴욕 등과 姊妹結緣을 推進할 計劃임을 앞서 報告드린 바와 같으며, 姊妹交流事業도 都市施設物 安全管理調查團 等 市政의 懸案分野와 外國都市 先進分野에 우선 실시하는 등 서울市政 發展에 實質的인 도움이 될 수 있는 分野에 交流事業을 重點實施토록 할 計劃입니다.

두 번째로 海外駐在官 現況과 擴大設置方案, 主要活動實績 등에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먼저 海外駐在官 現況은 앞서 報告를 드렸습시다만 현재 東京都와 샌프란시스코, 파리 등 3個 都市에 3名의 駐在官을 派遣,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向後에는 앞서 業務報告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서울館 設置 運營과 同時에 追加로 북경과 LA에 駐在官을 派遣할 豫定으로 지금 推進 中에 있습니다. 駐在官들의 活動實績은 外國 都市의 都市管理技法 等 行政情報를 蒐集하고, 行政制度를 우리 서울市와 比較해서 研究檢討하고, 또 姉妹都市와의 交流 媒介體 機能을 遂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概略적으로 한번 살펴 보면 11月 현재까지 今年度에 자료수집 및 情報報告가 138件, 市廳의 視察出張者 等 訪問客을 現地에 案内하는 것이 169件, 또 會議參席 및 幹部面談이 198件, 其他 交流支援 534件 等 總 1,039件的 實績이 있었습니다. 駐在官의 派遣을 위해서 海外出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行政情報, 資料를 쉽게 蒐集할 수 있고, 現地를 訪問하는 公務員을 적절한 機關에 案内함으로써 所期의 旅行目的을 쉽게 達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市政發展에 奇與하고 있다고 評價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今年度 國際交流增進 活性化業務로 推進하고 있는 海外弘報使節團 派遣內譯과 主要活動, 그리고 使節團 構成에 우리 市議員 3名 中 海外交流增進特委 委員長이 參與하지 못한 事由는 무엇인가 이런 質問이 계셨고, 海外弘報使節團의 派遣과 關聯해서 姜晶錫 委員님께서도 같은 趣旨의 質問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한꺼번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定都600年 및 '94韓國訪問의 해를 맞이해서 韓國觀光公社 및 觀光業界와 合同으로 유럽, 일본, 동남아 등 3個 地域의 13個 都市에 海外弘報使節團을 派遣한 바가 있다 하는 것은 앞서 業務報告에서도 報告드렸습시다만 이러한 使節團構成은 名譽團長을 비롯해서 韓國觀光公社 弘報班 30名, 또 舞踊團, 또 觀光業界 代表들, 또 서울市 및 서울市議員 弘報班 7名 이렇게 해서 135名이 3個 地域에 派遣되어서 活動을 함으로써 觀光交易展을 開催했고, 現地 '한국의 밤'을 開催하고, 言論人을 招請해서 韓國 觀光資源을 설명하고, 또 觀光關聯機關과 團體를 訪問한 實績에 대해서는 앞서 報告드린 바와 같습시다만 여기에 서울市가 支援한 豫算은 2億원이었습니다. 參考로 韓國觀光公社가 支援한 總 豫算은 8億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市에서는 2億원을 支援하였습니다. 이 弘報使節團 派遣計劃은 94年 韓國訪問의 해에 對備해서 92年度부터 交通部主管으로 計劃이 되어서 93年, 94年 2年間に 推進된 事業으로서 當初 計劃에는 유감스럽게도 서울特別市議會 會與計劃이 없었으나 94年初에 市議會 文化教育委員會의 要請에 의해서 今年度에 처음으로 市議會 議員이 여기에 參與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은 여기에 參與하는 計劃에서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本 計劃과 같은 行事가 推進될 시에는 海外交流增進特委 委員님들의 參與方案을 積極적으로 檢討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姜晶錫 委員님께서 서울 定都600年紀念事業 中에서 國際交流增進에 奇與한 行事 推進實績과 實施效果 等に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定都 600年 紀念行事는 네 가지 主題를 가지고 施行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열려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主題가 네 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主題가 의미하듯이 모든 行事를 世界人과 함께하는 行事로 企劃되고 推進되었습니다. 行事 推進日程 內容을 英語 等 外國語로 作成配布를 했고, 外國의 主要都市 市長 및 主要人士에게 市長의 書信과 弘報物을 보낸 바 있었고, 外國 駐在公館과 觀光公社 海外支社를 통해서 現地弘報를 대대적으로 實施를 했습니다.

특히 國際交流增進에 奇與한 行事를 몇 가지 報告해 올리면 姉妹友好都市 民俗祝祭가 10月 7일부터 10月 13日 期間 中에서 11個 姉妹友好都市 民俗藝術團이 參與를 해서 서울 公演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서 業務報告에서도 報告드렸습시다만 約 7萬名 이상의 市民이 參與를 해서 海外의 그런 文化와 서로 市民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所要된 豫算은 5億 5,500萬원이 所要되었습니다.

그리고 北京週間을 11月 10일부터 11月 16日 期間 中에 開催를 해서 北京의 商品展示會, 또 役資相談會, 藝術團 公演, 요리주간 行事 等を 갖고 서울과 北京의 經濟交流 活性化를 위해서 奇與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業務報告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 豫算은 北京이 주로 負擔을 해서 實施를 했고, 저희 서울市에서는 約 2,000萬원 정도의 負擔을 했습니다. 이것은 北京市長 招請費用으로 慣例에 의해서 招請하는 쪽에서 이쪽에 있는 滞在費 負擔하는 것이 外交上의 慣例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그런 豫算이 所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학술심포지엄은 1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20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미래도시의 구상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학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途上國 都市公務員 招請研修는 최초로 이것을 施行함으로써 이제 우리 나라도 援助를 받기만 하는 그런 나라 또는 그런 都市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積極적으로 海外에 알리고, 또 外國人을 招請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國際交流의 교두보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實施를 했습니다.

다음에 質問하신 姉妹都市 現況과 交流事業, 交流實績 또 駐在官 現況과 駐在官 任務, 駐在官의 效率的인 業務推進을 위한 支援대책 等に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報告드렸습시다만 서울시가 姉妹結緣한 都市는 東京, 北경, 자카르타, 앙카라,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모스크바, 파리, 보고타,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뉴사우스웨일즈, 타이페이 이렇게 13개 都市가 됩니다.

今年度 交流實績은 11월 현재 派遣해서 姉妹都市의 여러 가지 情報를 蒐集하고, 視察한 것이 21개 事業으로서 주로 住宅事業, 또 環境, 스포츠 등의 事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姉妹 海外都市의 公務員 等を 우리市에 招請해서 한 事業이 12개 事業으로서 주로 財政運營에 관한 그런 調査團이 왔었고, 交通·환경행정에 대한 調査團이 저희 서울시에 와서 交流事業을 벌였습니다. 姉妹都市 交流事業豫算은 주로 國外旅費가 되겠습니다만 約 1億 5,000萬원이 所要가 됐습니다.

그리고 駐在官 現況 等 關聯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면

駐在官 現況은 샌프란시스코, 동경, 파리 등 3個 都市에 3名이 派遣되어 있고, 外國都市의 都市管理技法 等 行政資料와 行政情報를 蒐集을 하고, 行政制度를 比較 研究하며, 姉妹都市 訪問團을 案内하고 通譯을 하는 등 그러한 案内業務機能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駐在官의 所要豫算은 2億 1,600萬원이 所要되고 있습니다. 그 內譯은 駐在官 事務室 賃借料, 特殊活動費, 公共料金, 車輛費, 在外勤務手當, 家族手當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駐在官의 효율적인 業務推進을 위한 支援對策으로는 駐在官의 準外交官 身分附與를 지금 推進 中에 있고, 효율적인 資料購入을 위한 圖書購入費를 支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計劃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

駐在官 選拔基準은 서울시 公務員 中에서 10年 이상 經歷을 가진 者로서 勤務實績이 優秀하고 또 該當 國의 外國語 驅使能力이 뛰어난 公務員을 選拔基準으로 삼고 있습니다.

駐在官 身分 및 대우는 서울시 駐在官은 外務公務員法上 外交官 地位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外務部에 準外交官 身分附與를 계속 建議할 것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問題가 없습니다.

그리고 李丁煥 委員님께서 좋은 質問을 주셨습니다. 觀光資源의 遺蹟이랄지 施設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전통음식이랄지 우리의 風俗, 또 固有한 것, 이러한 固有民俗을 觀光化해서 韓國의 固有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海外의 有名한 文化評論家は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固有하고 傳統的인 文化가 가장 世界的인 것이다, 오리

지널한 文化가 가장 世界的인 文化다, 그런 有名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나라의 아주 固有한 것, 그런 것이 海外에 나가서 評價를 받고 또 歡迎을 받는 것이지 西歐에서 들어온 그런 것을 모방한 것, 그런 것이 海外에 나가 봤자 또는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자랑해 봤자 외국사람이 그것을 評價해 주지 않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테이션이요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文化的인 價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觀光資源이 빈약한 것은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서울600年の 各種 紀念行事 中에서 固有한 民俗觀光資源을 發掘해서 그것을 定例化해서 실시함으로써 海外觀光客에게 觀光資源化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日本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日本은 조그마한 都市나 마을에서도 마을의 固有한 民俗祝祭를 觀光資源化해서 外國의 觀光客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今年 600年事業을 施行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觀光資源化하기 위해서 계속 努力을 하였습니다.

그 主要한 內容을 말씀드리면 한강다리밟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종묘대제, 또 과거시험을 再現하는 것. 또 한강축제, 또 봉화축제 등 7個의 固有文化行事를 觀光資源化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傳統的인 飲食과 禮節을 資源化하기 위해서 서울市內 民泊家口 120家口를 觀光公社와 협조해서 지금 그것을 民泊의 家庭으로 해서 實施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報告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韓國的인 것, 轉國的인 멋, 轉國的인 맛 이런 것을 觀光資源化하기 위한 事業으로서 이제 機構가 統合되어서 交通部에서 管掌하고 있던 業務가 文化體育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中央部處에 建議하고 또 中央政府와 協議해서 汎國家的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文化的인 측면, 소프트한 측면이 잘 開發되어서 우리의 유구한 傳統의 멋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努力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丁煥 委員; 局長님 말이죠, 今年에는 600年되는 해라 해서 아주 다양한 行事가 많았었는데 그 많은 行事가 今年 1회로 끝나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行事가 있을 것이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한강다리밟기라든지 종묘대제라든지 이렇게 年例化하는 그런 行事가 구분되는데, 今年 한 해로 끝나는 行事에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年例化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開發할, 그래서 이어나갈 行事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차제에 이것을 各 區가 地方自治化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江西區에는 江西區에 맞는 民俗이 있고, 瑞草區는 瑞草區에 맞는 民俗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各 區의 특성에 맞는 區單位에 委任을 해서 區單位 行事로, 委託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그런 行事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그런 計劃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앞으로 一回用 行事가 아니고 定例化해서 觀光資源化할 行事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다리밟기, 종묘대제, 과거시험 再現, 한강축제, 서울문화상품전, 서

을 시민의날, 그 다음에 봉화축제, 이런 것을 定例化해서 推
進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行事는 여러 가지 行事가 每
年 있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答
辯을 드릴 수는 없고요, 定例化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주 指摘을 잘하셨습니다만 自治區에서도 觀光資源化할 수
있는 그런 行事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鍾路區에서는
석전대제를 성균관에서 施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孔子를
추모하는 그런 行事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祭禮儀式
을 곁들여서 行事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國際的인 觀
光資源이 될 수 있는 그런 行事고, 그 다음에 中區에서는 明
洞祝祭를 하고 있습니다. 明洞을 문화거리로써 거리축제로써
이것을 한 2·3年 前부터 계속 實施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태원과 같이 明洞도 世界的인 쇼핑거리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 이것을 定例化해서 앞으로도 계속 推進할 計劃으로 있
고, 域北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선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李朝 朝鮮朝 때 正祖임금 때부터 養蠶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 뽕나무團地가 있습니다만, 城北2洞으로 올라가
는 평해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에서 선잠제를 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定例的인 그런
行事로써 地域祝祭로써 또는 觀光資源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도 育成해 나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江南區에서는 狎
鷗亭 文化祝祭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地域文化 名所인 家
族의 거리에서 우리의 傳統的인 그런 여러 가지 文化 이것과
現代的인 것을 가미해서, 혼합해서 이렇게 地域文化祝祭로써
育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東大門區에서는 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선농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농제향을 實

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豊年을 빌고 임금께서 직접 나가셔서 親耕, 밭갈이를 직접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설령 탕이죠, 선농단탕, 그렇게 해서 설령탕이라고 하는 유례가 생겼는데요, 선농단에서 그러한 行事를 했던 것을 祝祭化해서 선농제향을 地域文化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李丁煥 委員; 네, 됐습니다. 各 區廳 것을 다 설명하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地域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역시 地域에서 잘 發展을 시켜서 自律적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 市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地域의 固有文化를 잘 發展시켜서 祝祭化하고 觀光資源化하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公務員의 海外旅行時에 旅行制限現況과 旅券使用 制限 등, 그리고 向後 制限 緩和計劃과 서울市 公務員의 海外訓練 擴大, 海外旅行計劃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公務員의 海外旅行은 그 동안 많은 制約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今年初 公務員의 海外旅行 制限을 대폭적으로 緩和했습니다. 거의 철폐하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年間 年暇가 20日 정도 됩니다만, 年暇範圍 內에서 申告 없이 자유롭게 私的 海外旅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申告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한 旅券도 그 동안 一般旅券을 發給時에는 官用旅券은 返納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官用旅券은 返納하지 않고 一般旅券을 發給받아서 私的 海外旅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市 公務員의 海外訓練은 市에서도 向後 대폭 擴大할 計劃으로 長期 海

外訓練, 또 短期 海外訓練 등을 대폭적으로 擴大 推進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參考로 各 區廳에서도 公務員들의 海外視察을 통해서 見聞을 넓히고 또 士氣를 昂揚하기 위해서 各 區廳別로 다릅시다만 約 30名에서 60名 정도 海外視察計劃을 세워놓고 豫算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公務員들도 海外에 많이 나가서 海外訓練과 더불어서 見聞을 넓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愛國心과 근무자세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所管은 內務局所管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確約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擴大推進할 수 있도록 內務局에다 建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李丁煥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 中에 海外의 弘報團에 우리 서울市議員이 당초 對象에서 除外되었다가 文化教育委員 中에 몇 분이 參與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來年度에는 북경과 LA에 또 서울館을 開設할 한다고 計劃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자카르타, 상파울로 등등 앞으로 서울館을 主要都市에 開設할 豫定으로 있는데, 이러한 서울館을 開設을 하기 위한 妥當性 調査라든지 또 실제 開館 데이프를 끊는다든지 이럴 때 執行部만 參與할 일이 아니라 議會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代案을 모색을 해서 議會의 代表도 꼭 같이 參席할 수 있는 그런 制度的인 補完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檢討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揆辰; 局長님,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外國人 觀光客들에 대해서 調査를 한 것이 不便事項이 交通問題가 48%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늘 指摘事項이 되었고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結果적으로 不便事項을 發見했을 때 警告 및 過怠料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손님이 서울을 왔을 때 말하자면 바가지요금, 또 아니면 호텔에서서의 不親切, 이런 것이 問題化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警告 및 過怠料를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지금 質問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엄청난 問題點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文化觀光局長 이전에 個人的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外國 사람들이 韓國을 찾을 때 金浦空港에 도착하면 우선 택시부터 승차를 강요하고, 또 미터기를 꺾지 않고 一定額 이상을 要求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韓國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市에서도 택시운전자 그분들을 義務적으로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講師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해도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를 앞에 의자에 올려놓고요, 저도 상당히 講義는 상대방이 귀가 좋도록 잘 感動있게 한다고 自負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人間的인 모멸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못하게 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런 것이 지금 現在 우리 觀光業에 있어서의 位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一掃를 하느냐 하는 것이 큰 問題입니다. 사실 觀光資源을 開發해야 된다 그런 問題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오는 손님을 놓치는 그런 結果까지 오히

려 벌어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시다만, 處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觀光振興法에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國民에게 무슨 義務를 賦課한다거나 하는 것을 法에 規定되어 있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汎 政府 次元에서 그런 문제가 당장 1·2年 사이에는 안 되지만 長期的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解決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解決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制度上의 또는 法的 그런 制裁랄지 이런 것을 強化시켜서 制度上으로 이것을 解決해 가는 그런 改善策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반면에 저도 研究를 하고 또 中央部處에 建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揆辰; 그런데 本委員이 質問하는 趣旨는 서울시가 交通問題, 예를 든다면 택시 바가지 料金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어떻게 制裁를 할 수 있는 條例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現在 警告 및 過怠料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發見을 했다고 봤을 때는 免許 取消를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措置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國際的 問題로 발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局長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現在는 警告 및 過怠料밖에 하지 못하고 있죠?

○文化豫光局長 張正植; 過怠料를 먹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 免許를 取消한다고 하는 것 自體도 運輸事業法…….

○委員長 沈揆辰; 市에서 條例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아닙니다. 그런 것은 運輸事業法의 規定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強化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계속 主張을 하고 또 建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데 계속 努力을 하겠습니다. 서

울市 自體의 決定案으로써 免許取消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事項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建議를 해서라도 48%의 不便이다 이랬는데 實質的으로 이것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外國에서 韓國을 다녀간 觀光客들은 바가지 料金 때문에 韓國을 못 가겠다, 또 두번째는 호텔에서 너무 不親切하다 等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今年 94年度에도 李丁煥 委員님이 指摘한 것과 같이 우리는 8.2%의 觀光客 誘致를 했고 오히려 外國으로 우리 觀光客이 38%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적으로 이러한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沈揆辰; 이상으로 國際交流業務 推進現況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時間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12回 定期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을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5分 散會)

○出席委員

沈揆辰 李丁煥 姜晶錫

孟今龍

○專門委員

張奉萬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張正植